



통우컬럼

유별나야 한다

‘유별나다’는 뜻을 있을 유(有), 나눌 별(別)로,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통념이 아닌 특별한 것이 유별난 것이다.

나는 성공의 비결 중 하나로 ‘유별’을 꼽는다. 유별나게 공부해야 명문대에 가고, 유별나게 일해야 승진하고 성공한다. 남들이 하는 방법, 남들이 하는 정도, 남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평범 그 이상을 뛰어넘기 힘들다. 에디슨이 그랬고, 라이트 형제가 그랬고, 스티브잡스와 빌 게이츠가 그랬다. 성경에도 유별난 자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유별난 열심, 유별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중풍병자인 친구를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네 명의 친구들, 멸시천대를 마다하지 않은 수로보니게 여인, 심지어 그 집안의 씨를 받겠다고 시아버지와의 연을 맺은 다말이라는 여인까지….

유별나다보면 손가락질도 받고,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내가 그 샘플일지 모른다. 유별난 예수사랑으로 인해 많은 지탄과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유별나지 않고 어찌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 기
도성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오는 5월
3일에도 우리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제9차
집회를 갖는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유
별나다고 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
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래
야 한다는 것이 내 답이다.

유별나게 기도해야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애국가도 부르며 유난을 떨어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

두고 보라. 이 유난 편 우리 교단의 애국심이 우리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고,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며, 머지않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루게 할 것이니. 기대하시라.

“부족한 종이지만 이 한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참좋은예수중심교회의 담임 권종성 목사
의 각오다.

지난 3월 14일 참좋은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 날 총회장 목사님은 “내가 여기 온 것은 성도들에겐 보너스요, 권종성 목사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전제하신 후에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셨다.

“권종성 목사야,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범사에 총명 주시기를 원한다. 총

의 신이요 (사11:2)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췌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딤후2:4) 라고 말씀하고 있다. 집중력이 성공과 승리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네 생각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기 보다 아내나 자식에게 있다면, 생각이 이것저것에 분산된다면 전쟁에서 어찌 승리하겠니? 오직 성도와 교회만을 생각해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

하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의 방종은 허용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
는 것이 복음 아니겠니? 또 축복을 선포
하는 것이 교회다. 괜한 '이러면 저주 받
는다'는 투의 설교는 하지 마라.

잡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령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하셨다.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발로 찢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달란트대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심어라.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시시콜콜 참견하지 마라. 인재는 믿어줄 때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법이다. 그러나 염두에 뒀야 할 것은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더



참좋은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2017년 3월 14일)

명이란 귀 밝을 총(聰), 밝을 명(明)이다. 귀가 밝고,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이다. 귀가 밝으면 깨달음이 크며, 상대를 읽는 능력이 크고, 귀가 뚫리면 정보에 능할 수 있다. 그런데 목자가 소경이고, 귀가 둔하다면 어찌 되겠느냐? 맡겨진 양무리는 다 벼랑으로 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는 자명한 일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15:14)고 말씀하셨다. 남의 말은 빨리 듣고 내 말은 더디 하고, 사람을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며, 귀가 밝아 정보수집에 능해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다. 적을 알고 적에 대해 들어야 백전백승(百戰百勝) 한단다. 총명한 자가 되라.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

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는 말씀은 부모와 절연하고 아내와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 임직할 때 아내들에게 소복을 입히는 거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는 뜻이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딤후2:5) 라는 말씀이 있다. 경기 틀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될 뿐이란단.
하나님의 경기 룰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
하는 것이 우선이요, 정직하고 청결해야
하는 것이 둘째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
배려가 있어야 함이 셋째란다. 괜히 목사
라고 위엄이나 떨고 신종율법으로 성도
들을 얹어매려고 하면 성도들은 다 도망

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그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단다(딤후2:21). 그리고 권총성 목사는 솜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솜은 바늘로 찢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다. 너도 그런 자가 되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난관 앞에서, 환난 앞에서 백합화처럼 향기를 내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을 새롭게, 정신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

목사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참좋은 예수중심교회는 이름처럼 정말 좋은,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서기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춘계산상집회

3월 27(월)~ 30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3월 21일(화) 오전 10시 홈페이지 예약(www.jcc.tv)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6:26)



칭찬 속의 아침을 조심하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에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여 일부는 촛불집회를 하고, 일부는 태극기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동안 분분했던 생각들을 놓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악한 세력도 도사리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틈을 타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마귀의 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번 일로 갈등이 있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곳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신앙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너 명 되는 가족 간의 생각도 다를진대 국민 전체가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싸우고 분열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르마를 타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또한 마무리도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 손해가 막대하며,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로 갈 날이 선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 17:14).

저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의 안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요셉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항공모함을 잘 이끌 수 있는 자가 통치자

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관여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시키는 것이고, 5월 3일에도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크거나 작은 일에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풍란하는 방법은 모든 일을 공적으로 시작해서 공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공과사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일에 치우쳐 그것이 결국 울무가 되고 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던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스승이 곧 홍익범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가만 보고 있었습니까?” 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제자를 향해 “그래, 내가 네 맘을 잘 안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위로의 말 정도는 하셔도 무방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 할 만큼 말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공적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공과 사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하나님께 버림받듯이 공적으로 시작해서 사적으로 끝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칭찬 속에는 아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이란 자고로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역으로 뒷사람에게 하는 것은 상당부분 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그것에 춤추다보면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눈이 가려져 안 보이는

고, 귀가 막혀 안 들리게 될 것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침을 치는 것이니라”(잠 29:5).

양약구구(良藥苦口)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달콤하지요, 허나 몸이 상합니다. 씹을지라도 자신을 향해 총언해주고, 진언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길르앗라못을 놓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부를 떤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만은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충고요 진언이었지만, 아합은 달콤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왕상 22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의 부친 솔로몬이 행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이 총언하기를 “왕이 만일 오

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하였으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왕상 12:8)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따라 더욱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조각나는 사태에 이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잠 10:17).

귀명창이 명창이다 귀를 크게 열어서

무력으로 중원을 평정한 고조 유방에게 육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힘으로 백성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통치는 어렵다고 충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곰에게서 쓸개즙을 뺄 때 입에 달콤한 사탕을 물리고 빨대를 꽂아 쓸개즙을 빼냅니다. 곰은 사탕 먹느라고 아무 것도 모르지요.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아침꾼들은 당신의 재산을, 명예를, 신앙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잠 28:23). 사명자는 공인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더욱이 아침, 아부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습니다. 칭찬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 날에 면류관과 상을 기대하며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6).

여러분, 금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거울삼아 많은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로 정죄하는 일일랑 그만 두고 우리 하나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옥이나, 돌이나

우리는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쉴 새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은 한사람이 100년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거짓 정보와 왜곡된 정보들도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욱 더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에 오염되고 현혹되면 올바른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마저 지배당하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분히 감정적이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여론조사의 결과와 증폭된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소모적인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하면 7~80%가 공무원들은 부패하였다는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최근 5년간 뇌물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면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런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만연해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봐도 이런 단면을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당 정치인들은 고속도로는 자가용을 가진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이고, 엄청난 건설비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장비 앞에 드러누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건설과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할 때는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공이 되고나니 우려했던 환경 대재앙도 없었고 국가 기간시설로서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며 부화뇌동하지 말고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To Be Succeeded ::

한계를 뛰어넘는 힘

올림픽이 끝나면 연이어 패럴림픽(Paralympic)이 열린다. 패럴림픽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철저한 스포츠 정신으로 무장한 선수들은 오히려 일반선수들의 기록을 경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을 뛰어넘은 영웅들이 아닐 수 없다.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인권가로, 또 장애인을 위한 삶을 산 것,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우주물리학자로서의 권위를 자랑하고,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느 일반인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의 본보기가 된 것, 이 모두 ‘한계를 끌어안는’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한계를 지니고 산다. 비단 신체적인 연약함만이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인 환경이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나 결단력과 실행력의 부족함이 나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한계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환갑에 사람 귀를 자르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부인한 급하고 겁 많은 성미의 베드로를 담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만드셨고, 만성적인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다(고후12:9). 살인자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치명적 결함을 지닌 다윗을 회개케 하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소년 다윗이 자기의 작음을 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이다(삼상17:45).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4:16). 우리의 한계를 이길 힘의 근원은 우리의 의지만도, 노력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주자의 열 가지 후회(朱子十悔)

1.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2. 불친가족 소후회(不親家族, 疎後悔)
- 가족에게 친절히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3. 소불근학 노후회(少不勤學, 老後悔)
-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4. 안불사난 패후회(安不思難, 敗後悔)
-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5. 부불검용 빈후회(富不儉用, 貧後悔)
-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 후회한다.
6. 춘불경종 추후회(春不耕種, 秋後悔)
-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7. 불치원장 도후회(不治垣牆, 盜後悔)
-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

- 은 후에 후회한다.
8. 색불근신 병후회(色不謹慎, 病後悔)
- 이성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9.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 술 취해서 망언한 것은, 술 깨고 난 후에 후회한다.
 10. 부접빈객 거후회(不接賓客, 去後悔)
-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후회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껄껄거리고 있단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닐 걸’, ‘~잘 할 걸’..., 하며 후회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인생의 후회야 만회의 때가 있지만, 영혼의 때에 후회하게 된다면 길이 없다. 현재를 알차게 열심히,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



:: 귀를 기울이세요 ::

‘지옥철’이 ‘천국철’로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면 갑자기 전에 없던 공황장애와 함께 숨통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출근을 위해 매일 아침 ‘지옥철’로 유명한 9호선을 타기 때문이다. 9호선 중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가양-당산-고속터미널-신논현 구간에서 지하철 급행을 타다보니 언제나 발 디딜 틈도 없이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한 칸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지옥철로 유명한 지하철 2호선이 혼잡도 200%였는데 새로 생긴 9호선은 이에 더해 237%로 지하철 운행정지 수준인 240%에 거의 다다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침 풍경은 더 가관이다. 서로 밀치고, 누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아침부터 어떤 이의 큰 백팩이 나의 머리를 가격하고, 역겨운 담배냄새가 온몸에서 나는 사람들과 몸이 딱 붙어서 가는 출근길은 그리 상쾌하지만은 않다. 그리하여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위로 받을까 싶어 지옥철의 실상을 여과 없이 이야기 하였다. 그랬더니 친구 왈, “지옥철이라고 말하니 지옥철인거야.

직장이 없어 출퇴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직장에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의 말에 순간 창피함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감사로 시작하지 않은 나의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을 들으며 묵상기도를 했더니 ‘지옥철’은 ‘천국철’로 변하였다. 변함없이 오늘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을 급행에서 마주했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도 많은 직장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되었다. 또, 어제와 같이 어떤 이의 큰 백팩이 나의 머리를 가격하고, 담배냄새가 온몸에서 나는 사람들과 몸이 딱 붙어서 가는 똑같은 출근길이었지만 웃음이 나왔다. 매일아침 나의 출근길 환경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뿐이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놀라운 선교 비사

모든 분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기에
인터넷에서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여 간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둔 곳인지라 그만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명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통치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님의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중 48명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장

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 국회의원의 거의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제헌국회 속기록 첫장을 열면 기도로 회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회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伸冤)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

역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윌리엄 사모님 때문입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를 일기로 소천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명동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동안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 경성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감명 깊게 읽었던 이 글을 또다시 읽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잊을 만하면 또다시 읽어야 할 은혜의 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역사 너머라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라는 관점을 놓치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절감합니다.

.....

▶ 임시의장(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윤영 의원 기도(일동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우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우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참된 깨달음 ::

아름다운 인연!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제들도 아홉 명이나 있어서 집안일을 도

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 그를 런던으로 데려왔습니다. 결국 그 시골소년은 런던의 의과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 그 후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의 학업을 도운 귀족소년은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세 어린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존망이 달린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렸는데, 그 무렵 폐렴은 불치병이므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급송되어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

다. 이렇게 시골 소년이 두 번씩이나 생명을 구해준 이 귀족 소년의 이름은 바로 민주주의를 굳게 지킨 ‘윈스턴 처칠’입니다. 후일 영국수상이 된 귀족의 아들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알게 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무시했다라면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고 처칠은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귀족소년과 시골소년의 깊은 우정으로 농부의 아들은 의사가 되어 노벨의학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귀족 소년은 전쟁 중에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연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길 소망해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